

내년도 치즈축제 준비 착수

임실군, 일정 확정 등 발빠른 준비 나서

2017 임실N치즈축제의 대성공을 거둔 임실군이 내년도 축제일정을 조기에 확정하는 등 발빠른 준비에 나서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최근 임실N치즈축제 전위원회 총회를 개최, 신입 재전위원장(재)임실치즈테마파크 정희석 원장을 선출하고, 2018임실N치즈축제 개최일정을 올해와 같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을 확정지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추석연휴 기간인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4일간 개최된 2017 임실N치즈축제 성과보고와 함께 잘된 점과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 성과보고에서는 긴 연휴기간을 축제일정으로 확정하면서, 추석명절을 전후해 10만여명이 찾았고, 축제기간에는 35만여명이 찾는 등 무려 45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 4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당초 예상치인 30만명을 훨씬 뛰어넘는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임실N치즈의 브랜드 가치 및 정정임실 이미지를



임실군은 임실N치즈축제전위원회 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내년도 축제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성공한 축제하는 평가들이 이어졌다.

또한 분야별 평가를 통한 개선책과 대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내년 축제에 반영해 보다 완성도 높은 축제를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특히 축제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 및 단계별 로드맵을 조기에 확정, 대행사 선정 등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협업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심 민 군수는 "올해 축제의 성공에 힘입어 내년 축제는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해 대한민국을 넘어선 지구촌 문화관광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며 "단순한 음식 축제를 넘어선

임실N치즈와 문화예술을 융복합한 문화관광축제로서 2018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길 기대하며, 향후 5년 내에 100만명이 찾는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즈의 고장 임실에서 개최되는 임실N치즈축제는 드넓은 초지와 유럽풍 건축물로 '한국속의 스위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아름다운 경관과 국가대표 왕 치즈피자 만들기, 짙은 치즈 내치즈~, 치즈 떡볶이 등 치즈를 활용한 다양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가족과 연인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임실=진영명 기자



남원교통초등학교 4학년 총반학생들 5명이 학급을 대표하여 남원시장을 방문해 이환주 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의 미래' 초등학생에게 듣다

교통초 4학년생, 이환주 시장에 설문조사 결과서 전달

남원교통초등학교 4학년 총반(담임교사 최은혜) 학생들 5명이 학급을 대표하여 남원시장을 찾아왔다. 그들의 손에는 '지역주민이 바라는 남원의 미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서'가 들려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작은 손에 비해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 내용들이 아닐 수 없다. 총반 학생들은 이 설문조사를 지역주민 237명에게 실시했고 주민들이 바라는 남원의 미래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알리고자 찾아온 것이었다.

초등초롱한 학생들의 눈빛과 미주한 이환주시장의 눈높이 대화는 꽤 오랜 시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남원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인구감소를 들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과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

제를 활성화하고 출산장려, 관광산업 발전, 풍요로운 의료혜택, 시민의식 높이기 등에 노력할 것을 시장에게 설명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사뭇 진지했다.

그 자리에 함께한 남원시의회 장선희 의원은 설문조사 외에도 지역축제를 늘리고 관광을 활성화하자, 친환경공장을 만들자, 여가시설을 늘리자 등 분분한 총반 학급회의 결과를 들으며 이런 학생들이 있어 남원의 미래가 든든하고 밝을 수밖에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환주 시장은 남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싹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며 그들처럼 순수하고 꾸밈없는 시장을 이끌어 나가야겠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강천산 관광객 100만시대 활짝

이달 말 107만3000여명 방문

순창 강천산이 올해도 방문 관광객 100만을 훌쩍 넘어선 전복 대 표관광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29일 현재 강천산을 찾은 관광객 숫자가 107만 3000여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천산이 병풍폭포 열 음절경 등으로 겨울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어 앞으로 12월 관광객도 꾸준히 늘 것으로 군 측은 전망하고 있다.

강천산은 호반의 소금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산세와 기암괴석, 폭포 등이 연출하는 장관이 아름다운 산으로 1981년 전국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모두 각각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전국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붉은 빛을 발하는 애기단풍이 아름다워 최고의 단풍 관광지로 뽑힌다. 특히 병풍폭포에서 구장군 폭포까지 이어지는 2.5km 구간에는 애기 단풍이 병풍을 치듯 늘어선 붉은 웅덩이를 걷는 느낌마저 받는다. 올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11월 꼭 가봐야 할 만추 여행지로도 이름을 올렸다.

강천산은 최근 겨울관광지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느리게 흐르는 병풍폭포의 폭포수가 추운 날씨에 얼어 만든 얼음폭포의 모습은 절경이다. 겨울 방문객들이 대폭 늘었던 지난해부터 군은 비료포대 눈썰매 무료 대여 등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황숙주 군수는 "해마다 강천산 관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전국적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는 물론 더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전국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동절기 교통소통 원활... 도로 설해대책 가동

남원시,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작업 등 불편 최소화

남원시는 동절기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 설해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 300톤의 제설용 모래와 모래주머니 1만개를 보급하고 주요 도로변에도 모래주머니 2만개, 12개 노선에 결빙위험도로 안내표지판 26개를 설치했으며, 제설 장비의 정비·점검도 완료했다.

눈이 내릴 경우 관내 간선도로인 57개 노선(431.5km)에 제설장비 및 자가 투입되고, 19개 읍면동에서는 217명의 제설봉사대원들이 트랙터와 1톤 트럭을 제설기 217대를 활용하여 합동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고기3거리~정령치~달궁 삼거리



12km의 구간을 도로 통제구간으로 지정하여 차량교통을 통제한다. 아울러 교차로, 교량, 경사가 급한 이면도로, 횡단보도 등도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도로 이용객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남정식 건설과장은 골목길과 인도의 제설작업에는 행정력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만큼, 내 집 및 점포 앞 눈치우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문화원의 날 기념식 성황

임실문화원(원장 최성미)은 29일 '제1회 임실문화원의 날 기념식 및 수감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임실문화원 공연장에서 개원53주년을 맞아 박진두 부군수, 문영두 군의장, 한완수 도의원, 나종우 전북문화원연합회장 등 문화가족 및 지역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임실문화원 운영에 공을 세운 회원 및 프로그램 강사 등 8명에게 군수표창, 한국문화원연합회장 표창 등이 수여됐다.

또한 댄스, 음악, 연극, 작품전시 등 문화원 프로그램 강좌 수강생의 발표회가 열려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임실문화원은 지난 5월 지상3층, 지하층 규모로 개원했으며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청소년 지역 문화창조 프로그램, 낙화공예, 켈트공예 등 6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임실문화원이 신축된 후 군민이 문화를 즐기고 향토사의 활발한 조사연구 등 지역 문화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며 실용적인 문화공간으로 더욱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영명 기자



순창기업사 봉성배 대표 육천인재속에 장학금 기탁

순창읍에 소재한 순창기업사 봉성배 대표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씨달리며 순창 육천인재속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순창기업사는 우수한 품질의 벽돌과 블록 등을 생산하는 콘크리트제품 전문업체다.

봉성배 대표는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일은 지역의 희망을 일구는 일과 같다"면서 "기타침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금은 지역인재 양성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급식비에 쓰여질 예정이다.

한편 순창기업사 봉성배 대표는 지난해에도 인재육성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 백두대간 역사관
- 3D 애니메트로닉스관
- 어드벤처 라이더관
-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